

성경 그리고 토마스 아퀴나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묵상(132)(2/19/2022)

제 3 권 내적 위로

제 24 장 다른 사람들의 삶에 호기심을 갖고서 알려고 하지 않음, 1-2 절

딤편 5:13 -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 다니고 게으름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요 21:22 -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나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1. <그리스도> 아들이, 호기심을 갖지 말고, 쓸데없는 일들에 관심을 갖지 말라(딤편 5:13). 이런저런 일들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요 21:22). 어떤 사람이 어떻게 되거나,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장차 너는 다른 사람들을 대신해서 대답해야 할 의무는 주어지지 않을 것이고, 오직 네 자신에 대해서만 해명하고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그런데 왜 너는 다른 사람들의 일에 끼어들어 간섭을 하는 것이냐? 보라, 나는 모든 사람을 알고 있고,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을 보고 있다. 또한, 나는 각 사람의 상태가 어떠한지, 무엇을 생각하고 있으며, 무엇을 바라고 있고, 어떤 목적과 의도로 행하고 있는지도 알고 있다. 그러므로 너는 모든 일을 내게 맡겨 두고서, 깊은 평안 가운데서 잠잠히 지내라.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난리를 치고 소동을 부린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간섭하지 말고 내버려 두어라. 그들이 행하거나 말한 모든 것들은 그들 자신에게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나를 속일 수는 없기 때문이다.

2. 유명한 사람의 그늘 아래 들어가고자 하거나, 많은 사람들을 친구로 삼고자 하거나, 사람들의 사랑과 호의를 얻으려고 애쓰지 말라. 그런 것들에 힘을 쓰게 되면, 마음이 산란해지고, 많이 어두워지게 되기 때문이다. 오직 네가 부지런히 나의 임재를 구하고, 네 마음의 문을 내게 열기만 하면, 나의 “말씀”이 네게 허심탄회하게 말을 걸어와서, 감추어져 있던 것들을 계시해 줄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늘 정신을 바짝 차리고서 깨어 기도하고, 모든 일에서 네 자신을 낮추어라.

**말씀과 해설:**

우리가 살면서 마음에 번민이 생기는 여러가지 이유 중의 하나는 다른 사람의 삶의 모습에 불필요한 관심을 가지기 때문일 수 있다.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은 자칫 나와 그 사람들을 비교하게 하고, 그 비교는 교만한 마음을 가지게 하거나 혹은 열등감, 상대적 박탈감, 그리고 자괴감에 빠지게 할 수도 있다.

성경은 나만을 위해 살지 말고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돕고 섬기라고 말씀한다. 빌 2:4 - **각각 자기 일을 돌볼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형제 자매된 교우들의 삶의 어려움을 그냥 보고만 있지 말고 서로 돕고 섬겨야 한다. 더 나아가, 우리가 잘 모르는 이웃들과 심지어 멀리 떨어진 이 세상 곳곳의 고난 당하는 사람들에게까지 사랑의 손길을 베풀며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그들 모두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렇게 주님의 사랑으로 남을 돕고 섬기는 것과 남의 삶의 일에 쓸데없이 관심을 가지며 궁금해 하고 나와 비교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이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남의 일에 지나치게 관심을 두며 간섭하고 말을 만드는 일부 성도들의 문제를 지적했다. 딤편 5:13 -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 다니고 게으름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 역시 다른 제자의 삶과 사역에 불필요한 관심을 가졌던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요 21 장에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실의에 빠져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던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사명을 주신 말씀이 담겨 있다. 주님은 특히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세 차례의 질문과 “내 양을 먹이고 치라”는 세 차례의 명령을 하셨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미래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요 21:18 -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 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 띠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은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과 순교를 당할 것임을 예언하신 말씀이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고는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요 21:19)고 하셨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요 21:20), 다시 말해서, 요한이 주님을 따르는 것을 보더니, 갑자기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요 21:21)라고 물었다. 베드로는 왜 갑자기 요한의 미래에 대해서 물었을까? 어떤 학자들은 베드로가 질문한 이유는 요한에 대한 질투 때문이라고 보며, 또 다른 학자들은 요한에 대한 염려 때문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무엇이 옳든지 간에 베드로의 질문은 요한에 대한 불필요한 관심을 드러내는 것임이 분명하다 하겠다. 그 증거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다. 요 21:22 -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예수님의 메시지는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네게 무슨 상관이냐.” 이 말씀은 신경쓰지 말라는 말씀이다. 요한이 순교를 하든 오래 살든 그것은 베드로의 관심사가 아니라는 것이다. 둘째,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남의 일에 관심 갖지 말고, 내가 너에게 부여한 사명에 집중하며 나를 잘 따르는데 최선을 다하라’고 하셨다. 흥미롭게도,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은 두 번이나 반복되어 나타난다. “나를 따르라(19 절) - “네게 무슨 상관이냐”(22 절), “나를 따르라”(22 절) - “네게 무슨 상관이냐”(23 절).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반복함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 같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원하신 것은 다른 사람에 대한 지나친 관심을 버리고 주님께서 베드로 자신에게 부여하신 사명, 베드로 자신이 걸어갈 인생, 베드로 자신과 주님과 관계에 집중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주님께 온전히 순종함으로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이었다. 결국 베드로는 그 말씀대로 행했고, 우리가 아는 대로 베드로와 요한은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자 사도의 반열에 오르게 되었다.

주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신다.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다른 사람들의 삶의 모습에 불필요한 호기심과 관심을 갖고 들여다 보면서 너 자신과 비교하고, 그것을 통해 부러워하기도 하고, 시기와 질투에 빠지기도 하며, 너의 삶에 불만족스런 마음, 열등감, 박탈감, 불행감을 느끼면서 괴로움에 빠지지 말라.’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내가 너에게 허락한 삶을 기억하라. 내가 너에게 준 수많은 삶의 선물들을 바라보아라. 내가 너에게 준 사명을 기억하고, 내가 너에게 걸기 원하는 인생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네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생각하라. 무엇보다도 너는 나를 따르라. 나는 네가 걸어갈 그 길을 너와 함께 걸을 것이다. 너를 통하여 나의 일을 이룰 것이다. 베드로가 순교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처럼(요 21:19), 나는 너의 삶을 통해 영광을 받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말씀이다.

베드로에게 주신 것과 같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메시지를 가슴에 품고 승리하는 인생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 함께 나눌 기도 제목.

1. 오늘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두 가지 말씀 -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 을 우리의 심령에 새기고, 주님만을 온전히 따르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2. 우리교회가 속한 미국장로교가 말씀과 성령의 은혜로 참된 영적 갱신과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3. 우리교회가 기도하고 후원하는 아시아 지역 선교사님들(이란 태일, 인도네시아 하영광, 말레이시아 홍리브가, 키르기스스탄 홍패밀리)의 사역과 가정을 성령님의 강력한 능력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4. 오늘 하루의 삶이 주님께 합당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목상이 주님 앞에 열납되게 하옵소서(시 19:14).